



①, ②, ③, ④

성인 <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미술로 기록>

1회차 - 내가 선택한 의령의 모습 (풍경수채화)

의령의 모습 중에서 미래에도 남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의미있는 풍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수채화를 활용하여 진행한 풍경화 작업

2회차 - 여기 의령에 우리들이 있었다 (판화)

자신의 얼굴사진을 보며 자신을 문장으로 표현해보고 나는 어떤 사람 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고민해보며 진행한 판화 작업

3회차 - 내가 선택한 의령의 모습 (콜라주)

의령에서 살아가며 느꼈던 생각을 토대로, 장소, 사람, 물건 사진과 오브제를 활용하여 의령의 지도를 채우는 콜라주 작업

4회차 - 우리의 흔적, 손 (만다라)

의령에서 내가 이뤄낸 성취경험에 대해 생각해보며 손바닥을 활용하여 진행한 집단 만다라 작업

⑤

단편 영상 <조각모음>, 단채널 영상 15:24

감독 이경주

의령에 20년간 살아온 '나'는 의령을 벗어나고 싶어하면서도 의령과 닮은 것을 그리워하는 모순적인 감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정든 곳이 고향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그림고 정들지 않은 '의령'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의령을 그림고 정든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령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령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의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으며 내가 알던 의령, 그리고 모르던 의령을 알아갑니다.

⑥

모두모다ModModA 활동 아카이빙

2022.10.28~30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예술프로그램 주관

2022.11.15~27 의병박물관 의령출신청년작가

초대전 : <SEVENLINES>

2023.1.23 의령출신 예술가 대상 : 모두모다 사업
설명회

2023.4.21~23 의령홍의장군축제 웹툰프로그램 및
강연회 주관

2023.5 ~ 12 <사라진 의령과 유적발굴가> 프로젝트

